

31장. 욥의 마지막 변호

욥은 앞의 두 장에서 자기의 고난과 수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이제 3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여기서 욥이 자기 저주의 형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때문에, 일견 욥의 세 친구와 비슷한 태도로 비추기도 한다. 그렇지만 자기의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7-34절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부르는 부분(4-6, 35-37절) 사이에 놓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욥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무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실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지막 부분인 38-40절에서는 자기의 죄가 더 있을 것을 인정하고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바리새인의 외식과는 그 모습이 다르다.

여기 이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정결함을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욥은 자기가 자기의 눈과 언약을 세우고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순전하게 지킨 사실을 간음죄와 관련한 이러한 덕목을 중심으로 표현하였다. 그가 눈으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욥은 눈만이 아니라, 길과 걸음, 발 등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살피고 걸음을 세셨기 때문에, 그가 온전하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의 생각, 즉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생각과 같다. 욥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였다.

31:5-34에서는 저주의 형식을 사용하여서, 만일 자신의 죄가 밝혀지면 그러한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 선언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목록은 열 가지이다.

- (1) 마음의 탈선 (7-8절)
- (2) 간음 (9-12절)
- (3) 종들에게 불의하게 대함 (13-15절)
- (4)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음 (16-20절)
- (5) 고아를 함부로 대함 (21-23절)
- (6) 재물을 의지함 (24-25절)
- (7) 일월성신 숭배 (26-28절)
- (8) 원수를 미워함 (29-30절)
- (9)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음 (31-32절)
- (10) 위선 (33-34절)

자기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기 위해 저주의 형식까지 사용한 욥은, 더 나아가서 자기의 말에 자기의 서명을 써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제출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백 선언에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이다(31:35).

욥은 자기가 그릇 행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하나님뿐 아니라 자연 만물까지 증인으로 삼아서 자기의 무죄를 호소한 것이다.

묵상과 실천:

자기 결백을 주장한 욥의 호소

31장에서 욥은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는 세 친구를 향하여 말을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도덕적 행위 열 가지를 말한다. 그러한 행위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말한다.

욕의 이러한 태도는 자기의 선행에 근거하여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는 친구들의 비난과 고소에 대하여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 말을 하였다.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경향이 많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에서 벗어난 것이고,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을 자랑하는 태도로 넘어간다.

19장에서 여호와를 자기의 구속자로 삼고 호소한 욥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모시면서 그분께 자기의 호소를 맡겼다. 서명하여 맡긴 욥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엘리후의 이야기 후에 잘 배울 수 있다.